

내담자의 정서표현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비교 문화 연구*

서 영 석†

건국대학교

본 연구는 상담자의 문화가치, 성별, 국적, 혼인 여부가 내담자의 서로 다른 감정을 강조하는 두 가지 상담기법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36명의 미국 상담자들과 39명의 한국 상담자들은 두 개의 상담대본(자아 중심적 감정대본과 타인 중심적 감정대본)을 모두 읽고 각각의 대본에 나온 상담자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의 국적, 상호의존적 성향, 그리고 성별에 따라 상담기법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우선 한국 상담자들은 남녀 모두 자아 중심적 감정을 강조하는 상담기법을 더 높게 평가했다. 미국 상담자들의 경우, 여자상담자들은 상호의존적 성향이 강할수록 타인 중심적 감정을 강조한 상담기법을 더 높게 평가한 반면, 미국 남자 상담자들은 상호의존적 성향이 강할수록 자아 중심적 감정을 강조하는 상담기법을 더 높게 평가했다. 본 연구는 적은 수의 참여자들이 특정 상담문제를 다룬 모의상담사례를 읽고 그 속에 나타난 상담자를 평가했기 때문에, 다른 상담문제를 다루는 실제 상담 장면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상담 장면에서 감정표현과 관련된 제반 현상에 대해 상담의 한 주체인 상담자의 문화적 가치 또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주요어 : 상담자 문화가치, 자아 중심적 감정, 타인 중심적 감정, 상호의존적 성향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건국대학교 신입교원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교신저자 : 서 영 석, (143-701)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전화 : 02) 450-4189, E-mail : seox0004@konkuk.ac.kr

상담의 이론적 접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담자의 정서표현과 관련된 제반 현상들이 상담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Heesacher & Bradley, 1997; Wester, Vogel, Pressly, & Heesacker, 2002). 내담자의 감정표현을 촉진시키는 상담자 반응, 예를 들어 내담자의 감정을 반성(reflect)하고 내담자의 감정을 면밀히 조사하는 질문들이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관계 기술로 간주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듯, 상담에서 정서표현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서표현에 대한 연구가 상담심리학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서영석, 안창일, 2003; Heesacker & Bradley, 1997; Seo, 2002). 더욱이, 상담구성원의 문화적 가치와 정서표현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내담자의 문화가치와 정서표현에 관한 이론들은 수세기 전부터 아시아계미국인 상담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제기되어왔다. 그들에 따르면, 아시아인들은 어릴 때부터 가족의 평화와 조화를 어지럽히는 감정들을 숨기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에(Caudill & Weinstein, 1966; Sue, 1973), 아시아문화가치에 충실한 사람일수록 과묵하고 감정표현을 꺼리는 성격특성을 발전시킨다(Leong, 1992; Uba, 1994). 따라서, 이들은 내담자의 내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서양의 개인주의적인 상담접근이 오히려 아시아내담자들에게 이질적인 현상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으며, 조기종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Leong, 1992; Sue & Sue, 1999). Kim, Atkinson, Umemoto(2001)는 아시아 문화가치와 감정표현에 대한 기존의 상담심리학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동양의 문화가치에

충실한 내담자일수록 감정의 경험과 표현을 강조하는 상담기법보다는 내담자의 사고를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인지적 상담기법을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몇몇 연구들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이러한 주장과 가설들의 타당성과 적용범위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아시아계 미국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동양의 문화가치에 충실한 내담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격려한 상담자보다는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한 상담자를 더 유능하다고 평가하였다(Kim, Li, & Liang, 2002). 또한, 미국대학생과 한국유학생들은 그들의 국적과 문화가치에 상관없이 내담자의 사고보다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한 상담자를 더 선호하였다(Seo, 2002). 한편, 한국의 대학생들 역시 동양의 전통적인 문화가치, 즉 상호의존적 성향이 강할수록 내담자의 인지적인 측면보다는 내담자의 감정표현을 강조하는 정의적 상담기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영석, 안창일, 2003).

문화가치와 상담기법선호도(인지적 혹은 정의적 상담기법) 간의 관계를 밝힌 일반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문화가치 수용정도가 선호되는 감정의 종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또한 상담분야에서 최근에 진행되었다(서영석, 2003; Seo, 2002).

Seo(2002)는 미국대학생들과 한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강조하는 감정들, 즉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강조되는 자아 중심적 감정 혹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강조되는 타인 중심적 감정들을 표현할 것을 강조하는 상담대본을 읽게 한 후 대본에 나온 상담자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참여자일수록 자아 중심적 감정들을 경험하고 표현할 것을 강조한 상담자를 선호한 반면, 독립적인 성향이 약한 참여자일수록 타인 중심적 감정들을 표현할 것을 강조한 상담자를 선호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과거에 상담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독립적 성향이 높을수록 내담자로 하여금 자아 중심적 감정들을 표현하도록 강조한 상담자가 미래에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으며 더 높은 상담의도를 보였다. 반면, 상담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자아 중심적 감정들을 강조한 상담자에 대한 평가는 낮아지고 타인 중심적 감정을 강조한 상담자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아졌다(서영석, 2003).

문화가치와 정서표현 간의 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가설들의 타당성이 재고려되어야 하며 경험적인 후속 연구들에 의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설령, 아시아인들의 문화가치와 정서표현에 대한 이론들이 일반적인 생활환경에서의 행동원리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행해진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그러한 관련성이 상담이라는 특수한 문화현상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상담 및 심리치료가 적용될 수 있는 실증적 이론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선행 연구들은 내담자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실시된 연구들은 내담자 혹은 미래의 내담자들이 어떤 문화가치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상담 장면에서 선

호하는 감정의 종류가 달라짐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크게는 내담자의 개별성과 독특성을 존중하는 상담의 기본 원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상담기술을 습득할 것을 강조하는 상담학계의 일반적인 경향보다 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 혹은 미래의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환경뿐만 아니라 내담자 자신이 그 문화가 제시하는 가치체계를 얼마만큼 수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내담자 개인의 심리내적 문화가치가 상담 장면에서 고려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가치와 정서표현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이론 확립을 위해 앞으로 다각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이 분야에서 간과되어 온 중요한 측면이 있다. 즉, 상담의 한 주체인 상담자에 대한 연구, 특히 상담자의 문화가치와 정서표현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가 그것이다. 이것은 내담자의 문화가치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문화가치, 그리고 상담과정에 내재된 가치들의 일치 혹은 불일치가 상담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 상담학계의 주장(예, Sue & Sue, 1999)과 일맥상통하며, 문화가치와 정서표현을 주제로 행해진 기존의 연구들(서영석, 2003; 서영석, 안창일, 2003; Seo, 2002)에서 공통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실, 많은 상담심리학자들은 상담과 심리치료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강조하며(예, Bellah, Madsen, Sullivan, Swindler, & Tipton, 1985; Kelly, 1989; Kelly, 1990), 내담자의 가치체계가 상담자의 가치체계로 합류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Lee & Kelly, 1996). 이것은 결국, 상담이 탈가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가

치를 지향하는 문화적 현상이며, 상담자는 그러한 문화적 가치를 상담이라는 행위를 통해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대리인(agent)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듯, 상담이 지향하는 가치가 상담관계를 통해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내담자와 관련된 변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러한 가치가 상담과정과 상담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담에서 내담자의 정서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크고, 내담자의 문화가치 수용도에 따라 선호하는 감정의 종류가 다른 상황에서는, 상담자의 문화가치와 내담자의 감정표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의 한 주체인 상담자의 내적변인이 서로 다른 문화가치를 대변하는 감정표현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국과 미국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밝혀보고자 하였다. 상담자의 개인내적 문화가치는 Markus와 Kitayama(1991)가 주장한 자기구성개념(self-construal)을 사용하여 집단주의 문화가치와 개인주의 문화가치를 측정하였고, 각각의 문화에서 강조하는 감정들을 표현하는 상담대본(Seo, 2002)을 사용하여 상담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문화가치수용도 뿐만 아니라 다른 내적변인들(국적, 성별, 혼인여부)을 독립변인으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문화구성원들의 집단 내 차이를 강조하는 최근 상담학계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Abreu & Gabarain, 2000; Sadowsky & Plake, 1992).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자의 개인내적 변인이 문화가치를 달

리하는 감정들을 강조하는 두 가지 상담접근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상담기법 선호도에 대한 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총 75명의 상담자 혹은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였는데, 36명(남자 13명, 여자 23명)의 미국 상담자 혹은 상담전공 대학원생들과 39명(남자 8명, 여자 31명)의 한국 상담자 및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미국인의 연령은 27세에서 60세까지 분포하였고($M = 38.83, SD = 9.70$), 이중 18명(50%)이 기혼자였다. 한국인의 연령은 25세에서 50세까지 분포하였고($M = 33.15, SD = 6.65$), 이중 21명(54%)이 기혼자였다. 미국참여자들 전원이 연구에 참여할 당시 상담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그들의 상담경력은 1년에서 36년까지 분포하였다($M = 9.75, SD = 8.22$). 반면에, 한국참여자들 중 35명(90%)이 연구당시 상담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상담 경력은 1년에서 21년까지 분포하였다($M = 5.67, SD = 4.88$).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묻는 설문지와 참여자의 개인내적 문화가치를 재는 자기구성개념척도, 상담 장면을 담은 두 개의 상담대본과 상담자신뢰도평가척도가 사용되었다.

자기구성개념척도(Self-construal Scale:SCS)

본 연구에서는 문화가치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자기구성개념(self-construal) (Markus & Kitayam, 1991)을 채택하였고, 참여자들의 자기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Singelis(1994)가 개발한 자기구성개념척도(Self-construal Scale: SCS)를 사용하였다.

개인이 자신과 타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문화마다 다르게 형성되며, 이러한 관점이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1994). Markus와 Kitayama(1991)는 미국과 대부분의 서구유럽 문화권에서 자아는 타인들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족적인(self-contained) 존재로 정의되며, 자신의 태도와 결정들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것을 중시하고, 개인의 독특한 잠재성을 개발하고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적 명령(cultural imperatives)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드러내도록 요구받게 되는데, 특히 개인의 내적인 특성들을 중시하는 감정들, 즉 자아 중심적 감정(ego-focused emotions), 예를 들어 화, 자부심, 좌절감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에 능숙해 질 것을 요구받는다.

반면, 상호의존적 혹은 집단주의적인 관점은 아시아문화권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남부유럽문화권의 문화적인 특성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문화들의 규범적 명령은, 개인의 의견, 능력, 특성들을 표현하고 개발하는 것에 있지 않고 타인들과의 상호의존성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자아는 타인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들을 찾으려 노력하고, 관계 속에서의 의무를 수행하려하며, 타인들의 기대와 욕구를 기초로 행동하려는 특

징을 보인다(Church, 1987; Yang, 1981). 이러한 문화권에서 개인의 내적 특성들을 강조하는 감정들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상호의존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배치되어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대신, 개인의 감정은 타인들의 반응을 고려함으로써 형성되고 표현되는 경향이 강한데, 타인 중심적 감정들(other-focused emotions), 예를 들어 동정심, 수치심, 죄책감, 대인적 공유감(feelings of interpersonal communion)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문화적 성향, 즉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각각 독립적 자기구성개념(independent self-construal)과 상호의존적 자기구성개념(interdependent self-construal)으로 구분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구성개념척도(SCS)를 사용하였다. 인간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양극단의 현상으로 간주해온 과거의 척도들에 비해, SCS는 이 두 개의 문화가치가 한 개인 안에 병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CS는 각각의 자기구성개념에 대해 15개 문항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기구성개념척도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독립적 자기구성개념척도에 대한 Cronbach's alpha가 .67에서 .70 사이인 것으로 보고하였고, 상호의존적 자기구성개념척도의 Cronbach's alpha는 .71에서 .74 사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Singelis, 1994;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Yamada & Singelis, 1999). 또한, SCS는 다인종 간 비교와 집단주의적 의사전달 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그 타당도가 입증되었다(Singelis, 1994; Singelis & Brown, 1995). 본 연구에서는 Seo(2002)가 역번

역과정을 통해 번안하고 한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뢰도 검증작업을 거친 한국어판 자기구성개념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독립적 자기구성개념 .64, 상호의존적 자기구성개념척도 .74로 나타났다.

상담대본(counseling scripts)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상이한 상담양식의 조작적 정의를 위해 Seo(2002)가 개발한 두 개의 상담대본을 사용하였다. 이 대본들은 동일한 내담자의 문제, 즉 매 맞는 30대 여성의 심리적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강조하는 자아 중심적 감정들을 표현한 대본(ego-focused emotion script)과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강조하는 타인 중심적 감정들을 표현한 대본(other-focused emotion script)으로 구분된다. 자아 중심적 감정 대본 속의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화나 좌절감과 같은 자아 중심적 감정들을 경험하고 표현할 것을 강조하고(예, “그 감정에 충실해 보세요. 선영 씨의 그 꼭 쥐 손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타인 중심적 감정 대본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관련된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감정들(감정이입, 죄책감)을 경험하고 표현하도록 격려한다(예, “아이들은요? 지난 회기에서 자녀분들 걱정을 많이 하셨죠?”).

Seo(2002)는 상담대본이 연구자가 의도한 감정들을 제대로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주립대학교에서 상담을 전공하는 13명의 대학원생들에게 두 개의 대본을 차례로 읽게 하고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경험하고 표현하도록 강조하는 감정들을 열거하도록 요구하였다. 자

아 중심적 감정 대본에서는, 화(13명), 두려움(7명), 좌절감(6명) 등의 감정들이 지각되었고, 타인 중심적 감정 대본에서는 죄책감(11명), 사랑/돌봄(6명), 실망감(5명) 등의 감정들이 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이한 문화적 가치를 배경으로 하는 감정들이 각각의 대본에 잘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대본에서 상담자의 나이와 성별은 제시되지 않았고, 동일한 내담자, 동일한 문제를 다룸으로써, 가외변인들을 통제하고 오직 상이한 상담양식만이 연구참여자의 상담기법 인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두 대본 모두 29개의 내담자 반응과 30개의 상담자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7개의 내담자, 상담자 반응까지는 두 대본이 동일하지만, 상담자가 내담자의 서로 다른 감정들을 강조함으로써 나머지 내담자반응들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Seo가 역번역과정을 통해 만든 한국어판 대본들을 사용하였다.

상담자신뢰도평가척도(Counselor Credibility Rating Scale: CCRS)

상담대본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상담자신뢰도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CCRS는 여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본 속의 상담자가 얼마나 진지했으며(sincerity), 전문성(professionalism)이 있었는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통찰력(insightfulness)이 있었고, 상담자의 말과 질문이 얼마나 적절했으며(relevance),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도록 상담자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helpfulness), 그리고 상담문제에 대한 상담자의 접근방식이 얼마나 효과적(effectiveness)이었는지를 각각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

다. 자아 중심적 감정대본에 대한 CCRS의 Cronbach's alpha는 .94이었고, 타인 중심적 감정대본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11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서,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서 진행되었다. 우선,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두 곳의 대학상담센터와 한 곳의 지역상담소에서 각각 인터넷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각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소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세 곳의 상담센터에 총 75개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그 중 43개(57%)의 완성된 설문지가 회수되었는데, 국적이 외국인으로 보고된 설문지를 제외한 36개의 설문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는 서울에 있는 두 곳의 대학상담센터와 한 곳의 지역 상담센터에 설문지와 협조공문을 보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하였다. 총 86개의 설문지가 배포되었는데, 그 중 46개(53%)의 완성된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상담 실무경력이 없다고 보고한 7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39개의 설문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각각의 설문지는 개인의 신상 및 상담 실무경력 등을 묻는 인구통계학적 설문지와 자기구성개념척도, 두 개의 상담대본 및 상담자 신뢰도평가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은 인구통계학적 설문지와 자기구성개념척도를 작성하고, 두 개의 상담대본 중 하나를 읽고 상담자신뢰도평가척도에 의해 대본

속의 상담자를 평가하였다. 그런 후에 나머지 상담대본을 읽고 상담자신뢰도평가척도를 사용해 대본상의 상담자를 평가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각각의 상담대본을 읽은 후 대본 속의 상담자가 강조하고 있는 감정의 종류를 열거하도록 지시받았다. 대본이 제시된 순서는 설문지가 배포되기 전에 미리 무작위로 정해졌는데, 43명(한국인 21명, 미국인 22명; 남자 14명, 여자 29명)의 참여자가 자아 중심적 감정대본이 첫 번째로 제시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32명(한국인 18명, 미국인 14명; 남자 7명, 여자 25명)의 참여자는 타인 중심적 감정대본이 첫 번째로 제시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결과

상관분석 및 집단별 자기구성개념척도 분석

주요 연구문제에 대한 통계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연령, 상담경력)과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참여자들의 국적에 따라 두 개의 자기구성개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우선, 참여자의 연령과 상담경력이 독립변인(들)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주요 분석에서 공변인(covariate)으로 처리되었다(표 1 참조).

참여자들의 국적에 따라 두 개의 자기구성개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한국상담자들($M = 4.51, SD = 0.52$)은 미국상담자들($M = 4.39, SD = 0.64$)보다 더 독립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t(73) = 0.91, p > .05$). 마찬가지로

표 1. 변인 간 상관

	1	2	3	4	5	6	7
1. 성별	-						
2. 나이	-.08	-					
3. 혼인	-.01	.26*	-				
4. 상담경력	-.08	.80**	.27*	-			
5. 국적	-.17	.32**	-.04	.30*	-		
6. SCS-I	.01	-.07	-.07	-.06	-.11	-	
7. SCS-T	-.18	.07	.11	.06	-.20	-.07	-

참고. SCS-I = 독립적 자아개념척도; SCS-T =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척도.

상관분석 시, 여성, 기혼자, 미국 상담자를 1로 부호화 하였다.

* $p < .05$. ** $p < .01$.

지로, 한국상담자들($M = 4.97, SD = 0.49$)은 미국상담자들($M = 4.74, SD = 0.68$)에 비해 상호의존적인 성향이 강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t(73) = 1.73, p > .05$). 한편, 집단별로 두 개의 자기구성개념척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상담자들은 독립적인 자기구성개념척도에 비해 상호의존적 자기구성개념척도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t(38) = -5.58, p < .01$), 미국 상담자들의 경우 두 개의 자기구성개념척도 간의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35) = -1.83, p > .05$). 또한, 참여자들의 국적에 따라 두 개의 자기구성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의미 있는 상관을 보였는데, 한국 상담자들의 경우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r = .48, p < .01$) 미국 상담자들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r = -.45, p < .01$).

상담자신뢰도 분석

상담대본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이 독립변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전

에, 두 개의 상담대본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를 분석하였다. 두 상담대본은 상담자가 강조하는 감정의 종류가 다를 뿐, 상담자의 신뢰도(credibility)와 관련된 상담자특성들은 두 대본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되었다.

우선,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이 각 대본에서 상담자가 어떤 감정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알아보았다. 한국 상담자들은 자아중심적 감정대본에서 상담자가 화($n = 39, 100\%$), 두려움($n = 13, 33\%$), 증오($n = 9, 23\%$), 실망, 좌절감, 무기력($n = 8, 20\%$), 불안, 우울($n = 5, 12\%$), 슬픔($n = 3, 7\%$), 죄책감, 미움, 공포, 상실감($n = 1, 2\%$) 등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미국 상담자들은 자아중심적 감정대본 속의 상담자가 화($n = 36, 100\%$), 좌절감($n = 21, 58\%$), 실망($n = 17, 47\%$), 혼란($n = 14, 38\%$), 두려움($n = 13, 36\%$), 증오($n = 10, 27\%$), 무기력, 슬픔($n = 7, 19\%$), 무망감, 불안($n = 2, 5\%$), 적대감, 불쾌($n = 1, 2\%$) 등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한국 상담자들은 타인 중심

적 감정대본 속의 상담자는 죄책감($n = 21$, 53%), 사랑($n = 13$, 33%), 실망($n = 12$, 30%), 화($n = 8$, 20%), 불안($n = 7$, 17%), 우울($n = 4$, 10%), 양가감정, 두려움, 의무감, 희망($n = 3$, 7%), 놀람, 슬픔($n = 2$, 5%) 등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반면에, 미국 상담자들은 타인 중심적 감정대본 속의 상담자가 죄책감($n = 23$, 63%), 사랑, 실망($n = 14$, 38%), 슬픔($n = 12$, 33%), 불안($n = 9$, 25%), 화, 양가감정($n = 6$, 16%), 좌절, 두려움, 놀람($n = 4$, 11%), 수치심, 고통($n = 3$, 8%), 희망, 공정함, 무기력($n = 2$, 5%) 등의 감정을 강조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국의 상담자들이 각각의 대본에서 비슷한 감정들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대본들이 원래 의도했던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두 대본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은 상담자 신뢰도평가척도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이때, 모든 참여자들이 두 상담대본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대본의 종류’가 개인내변인(within-subject variable)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참여자들마다 상담대본을 읽은 순서가 다르기 때문

에 ‘대본의 순서’가 개인간변인(between-subject variable)으로 사용되었다. 두 상담대본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6개 문항 모두에 있어서 대본의 종류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참여자들은 두 대본에 나오는 상담자들의 상담자적 특성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지함과 전문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문항에 대해 상호작용효과(대본의 종류 × 대본의 순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본의 종류와 읽은 순서를 고려하여 평가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4개의 문항뿐만 아니라 무의미하게 밝혀진 두 개의 문항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두 번째로 읽은 상담대본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아 중심적 감정대본을 나중에 읽은 참여자들은 자아 중심적 감정대본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고 반대로 타인 중심적 감정대본을 나중에 읽은 참여자들은 타인 중심적 감정대본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따라서, 상담대본의 순서를 주요

표 2. 상담대본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

	자아 중심적 감정대본		타인 중심적 감정대본		대본종류	대본종류 × 대본순서
	M	SD	M	SD		
진지함	5.68	1.10	5.89	0.85	1.36	3.22
전문성	5.31	1.40	5.45	1.12	.16	2.65
통찰력	5.08	1.48	5.03	1.38	.40	7.98**
언어적 적절성	4.99	1.45	5.04	1.26	.02	6.67*
도움정도	4.95	1.62	5.04	1.46	.00	7.87**
접근방식의 효과성	4.83	1.56	4.97	1.40	.02	8.98**

참고. 각각의 분석에서 자유도는 (1, 73) 이었다.

* $p < .05$. ** $p < .01$.

분석에서 공변인(covariate)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통제하였다.

독립변인에 따른 상담자신뢰도 분석

주요 분석에서는 두 상담대본 간 상담자신뢰도 차이를 바탕으로 종속변인을 설정하였다. 우선, 상담자신뢰도평가척도의 6개 문항들에 대해 각각 자아 중심적 감정대본의 상담자신뢰도 점수에서 타인 중심적 감정대본의 상담자신뢰도 점수를 뺀 값을 구했다. 상담자신뢰도평가척도의 6개 문항들이 7점 척도로 평정되었기 때문에, 각 문항에 대한 두 상담대본 간의 차이는 -6에서 +6까지 분포한다. 따라서, 수치가 양수이면서 커질수록 자아 중심적 감정 대본에 나온 상담자를 더 높게 평가한 것을 의미하고, 반면에 수치가 음수이면서 감소할수록 타인 중심적 감정대본의 상담자를 더 높게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0점의 경우엔 두 상담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앞서 밝힌 것처럼 상담자신뢰도평가척도(CCRS)의 Cronbach's alpha가 자아 중심적 감정대본의 경우 .94, 타인 중심적 감정대본은 .92였다. 이것은 CCRS의 6개 문항들이 상담자의 동일한 특성을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6개 문항에서의 상담대본 간 점수차이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Cronbach's alpha가 .95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문항을 독립된 종속변수로 사용하지 않고, 6개 문항에서 나온 점수의 차이를 합해서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분석에서는 참여자의 성별, 혼인여부, 국적, 독립적 자아개념 및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이 독립변인으로, 연령,

상담경력, 상담대본의 순서가 각각 공변인으로, 그리고 두 상담대본의 점수의 차이의 합을 종속변인으로 채택하여 일원공변량분석(uni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는 해석상 유의미한 3자간 상호작용효과까지 설정하였는데, ANCOVA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주효과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성별, 국적,

표 3. ANCOVA 결과 요약 표

	Hypo. df	Error df	F
성별(A)	1	51	0.12
혼인여부(B)	1	51	3.19
국적(C)	1	51	0.45
SCS-I(D)	1	51	2.93
SCS-T(E)	1	51	1.04
A × B	1	51	2.29
A × C	1	51	3.73
A × D	1	51	0.00
A × E	1	51	0.08
B × C	1	51	0.19
B × D	1	51	0.01
B × E	1	51	3.62
C × D	1	51	0.02
C × E	1	51	0.52
A × B × C	1	51	2.60
A × B × D	1	51	0.09
A × B × E	1	51	3.08
A × C × D	1	51	0.11
A × C × E	1	51	5.22*
B × C × D	1	51	1.65
B × C × E	1	51	0.61

참고. SCS-I = 독립적 자아개념척도; SCS-T =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척도
*p < .05. **p < .01.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척도간의 삼자간 상호작용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자간 상호작용효과는 참여자의 성별과 상호의존적 성향간의 상호작용효과가 국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참여자의 국적에 따라 그림 1과 그림 2로 나누어 가시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종속변인과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척도 점수들이 성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표시되었고, 회귀선이 덧붙여졌다. 우선 그림 1은 한국 상담자들의 반응형태를 보여준다. 남자상담자들은 그들의 상호의존적 성향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한 반응을 보인 반면, 여자상담자들은 상호의존적 성향이 강해질수록 두 대본에 대한 상담자신뢰도의 차이가 증가하였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상담자들은 남녀 모두 그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타인 중심적 감정대본 속의 상담자보다는 자아 중심적 감정대본 속의 상담자를 더 신뢰롭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상담자들은 한국의 상담자들과는 매우 다른 반응양상을 보였다. 여자상담자들의 경우 상호의존적 성향이 증가할수록 두 대본 간 상담자신뢰도 차이가 부적인 방향으로 커진 반면에, 남자상담자들의 경우엔 상호의존적 성향이 증가할수록 상담자신뢰도 차이가 정적인 방향으로 커졌다. 즉, 미국 여자상담자들은 상호의존적 성향이 높을수록 자아 중심적 감정대본 속의 상담자보다는 타인 중심적 감정대본 속의 상담자가 더 신뢰롭다고 평가하였고, 남자 상담자들은 정반대의 평가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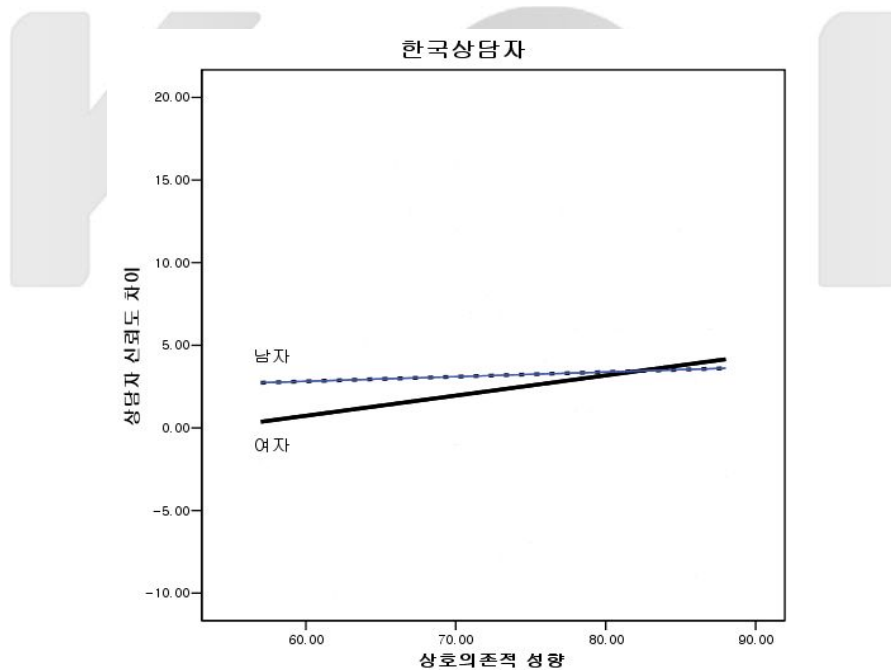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상담자들의 성별과 상호의존적 성향에 따른 상담자신뢰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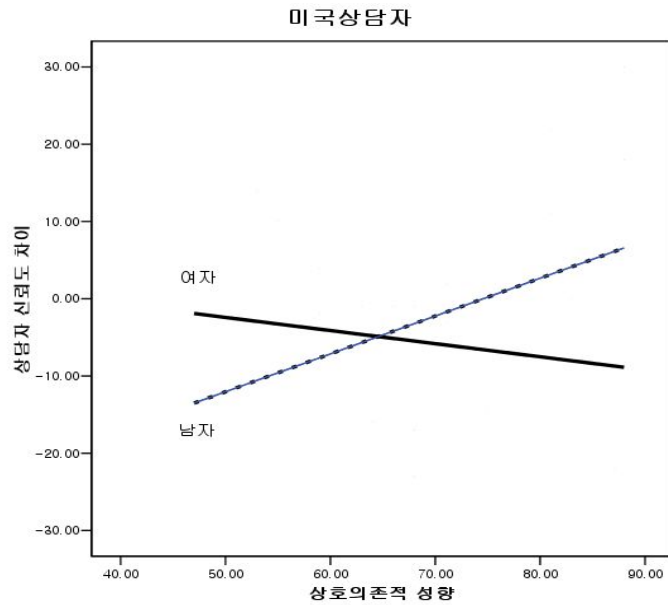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상담자들의 성별과 상호의존적 성향에 따른 상담자신뢰도 차이

논 의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상담자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를 대변하는 감정들을 어떻게 인식하며, 그들의 내적변인(문화가치, 성별, 국적, 혼인여부)이 이러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나라별로 남녀에 따라 그리고 상호의존적인 성향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감정표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연구결과가 문화가치와 감정표현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나라별로 남녀의 반응을 살펴보면, 한국 상담자들은 남녀 모두 상호의존적 성향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 중심적 감정을 표현하도록 강조한 상담자를 더 높게 평가했다. 반면에, 미국 상담자들의 경우엔 성별에 따라 다른 반

응양상을 보인다. 즉, 미국의 여자상담자들은 상호의존적 성향이 높을수록 타인 중심적 감정을 강조한 상담자를 더 높게 평가했지만, 미국의 남자상담자들은 상호의존성이 커질수록 자아 중심적 감정을 강조한 상담자를 더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주목해야할 점은 여전히 미국 남자상담자들의 80%가 타인 중심적 감정을 강조한 상담자를 더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기존의 이론과는 다른 반응들이 두 나라의 상담자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매우 뜻밖의 결과이다. 최소한 미국의 여자상담자들은 문화가치와 정서표현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일치하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수용하는 문화가치와 일치되게 반응했는데, 이는 개인의 독특성과 신념을 강조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할 것을 권장하는 개인주의문화의 특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상담자들은 남녀 모두 기존의 이론들이 가정하는 방향과 다르게 반응하였다. 즉, 한국의 상담자들은 집단주의로 대변되는 한국의 집합적(collective) 가치에도, 상담자 자신이 수용하는 문화가치에도 정반대되게 반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상담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일까?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아시아적 문화가치도, 상담자 자신이 수용하는 개인의 문화가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요인이 이들의 정서표현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뚜렷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의 상담자들이 서양의 전통적인 상담문화가 지향하는 개인주의적인 정서표현을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상담자들이 상담 장면에서 집합적인 사회문화적 가치보다는 상담이라는 문화현상 자체가 강조하는 가치를 더 우선시하지는 않는지 조심스럽게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서양에 원류를 둔 상담문화가 한국에 소개된 역사가 일천하고, 한국적인 상담모형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영희, 1982; ; 장성숙, 1999, 2000)이 제기된 것도 최근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 상담자들이 서양의 개인주의적 상담문화에 근접한 상담기법을 선호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 상담자들이 미국 상담자들과는 달리 상호의존성이 증가할수록 독립적인 성향 또한 증가한다는 사실은($r = .48, p < .01$), 한국 상담자들이 집단주의 문화가치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상담문화가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가치를 내적가치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점들이 본 연구결과

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인의 심정주의 특히 한과 관련된 사회, 문화심리학적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최상진(1991)은 恨을 가장 한국적인 한국인의 심성특질로 규정하고, 상대의 부당한 가해에서 비롯된 피해의식과 억울함, 분함, 서러움, 슬픔, 체념 등의 정서적 특성들을 내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한의 감정은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혹은 예술이나 놀이 등 간접적 경로를 통해 표출함으로써 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한의 정서적 특성과 해결방안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상담문제와 결부되어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연구에 참여한 한국 상담자들은 오랜 기간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온 내담자의 문제를 한의 문제로 정의하고, 내담자의 억울함과 분노를 간접적으로 표출하도록 유도한 상담기법이 내담자에게 더 정서적인 유대감과 만족을 주었다고 평가했을 수 있다. 결국 한의 정서적 특성을 담고 있는 내담자의 문제는 내담자의 내재적 감정을 공감적으로 수용하고 간접적으로 내담자의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해보도록 유도하는 상담기법이 관계 지향적이고 간접적 암시법 등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에 부합하다고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의 상담자들과는 달리 한국의 내담자들은 그들의 내적변인에 따라 선호하는 상담기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상담경험이 없는 한국의 대학생들의 경우 자아 중심적 감정을 강조한 상담자에 대한 평가는 낮아지고 타인 지향적 감정들을 강조한 상담자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서영석, 2003). 즉, 내담자의 정서적인 측면을 다룰 필요가 있는 상담의 경우에 한국 상담자들이 지향하는 개인주의적 접근과 상담경험이 없는 한국 내담자의 기대가 서로 상충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담경험여부와 정서표현에 대한 준비도 및 문화가치의 수용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내담자의 정서표현을 격려하고 강조해야 한다. 또한 상담자를 훈련하고 감독하는 상담감독자 역시, 정서표현과 관련된 상담실습생의 문화가치와 경향성을 주목하고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에게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세 개의 상담기관에서 표본을 추출했지만 참여한 상담자들의 수가 작아 연구결과를 각국의 모든 상담자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본 연구가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담자들의 인식에 기초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그들의 실제 상담행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연구결과의 의미와 적용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상담대본이 특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다른 종류의 상담문제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보다 폭넓은 심리문제와 다양한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서영석 (2003). 개인의 문화적 가치가 상담장면에서의 감정표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4(2), 329-345.
- 서영석, 안창일 (2003). 문화가치에 대한 충실도, 성격유형 및 상담경험이 상담기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03-421.
- 이영희 (1982). 문화와 상담: 문화 지향적 상담을 위한 서론. *숙명여자 대학교 논문집*, 23, 119-144.
- 장성숙 (1999).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 현실역동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9-33.
- 장성숙 (2000). 현실역동 상담; 한국인의 특성에 적합한 상담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7-32.
- 최상진 (1991).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39-350.
- Abreu, J. M., & Gabarain G. (2000). Social desirability and Mexican American counselor preferences: Statistical control for a potential confoun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65-176.
- Bellah, R. N., Madsen, R., Sullivan, W. M., Swindler, A., & Tipton, S. M. (1985).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udill, W., & Weinstein, H. (1966). Maternal care and infant behavior in Japan and in America. *Psychiatry*, 32, 12-43.
- Church, A. T. (1987). Personality research in a

- non-Western culture: The Philippines. *Psychological Bulletin*, 102, 272-292.
- Heesacker, M., & Bradley, M. M. (1997). Beyond feelings: Psychotherapy and emotion. *Counseling Psychologist*, 25, 201-219.
- Kelly, E. W., Jr. (1989). Social commitment and individualism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7, 341-344.
- Kelly, T. A. (1990). The role of values in psychotherapy: A critical review of process and outcome effect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171-186.
- Kim, B. S. K., Atkinson, D. R., & Umemoto, D. (2001). Asian cultural values and counseling process: Current knowledge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Counseling Psychologist*, 29, 570-603.
- Kim, B. S. K., Li, L. C., & Liang, C. T. H. (2002). Effects of Asian American client adherence to Asian cultural values, session goal, and counselor emphasis of client expression on career counseling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342-354.
- Lee, I.-J., & Kelly, E. W., Jr. (1996).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e group counseling: Effects with Korean cli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4, 254-266.
- Leong, F. T. (1992). Guidelines for minimizing premature termination among Asian American clients in group counseling.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17, 218-228.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Seo, Y. S. (2002). *Culture, personality, and emotional expression in counsel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ingelis, T. M., & Brown, W. J. (1995). Culture, self, and collectivist communication: Linking culture to individual behavior.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1, 354-389.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S., & Gelfand, M.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 Cultural Research: The Journal of Comparative Social Science*, 29, 240-275.
- Sodowsky, G. R., & Carey, J. C. (1988).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related demographics and cultural attitudes of an Asian-Indian immigrant group.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16, 117-136.
- Sue, D. W. (1973). Ethnic identity: the impact of two cultures on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Asians in America. In S. Sue & N. N. Wagner (Eds.), *Asian American: psychological perspectives*.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ue, D. W., & Sue, D. (1999). *Counseling the culturally different: Theory and practice* (3rd ed.). New York: Wiley.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4). Major cultural syndromes and emotion. In S. Kitayama and H. R. Markus (Eds.),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pp. 285-30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Uba, L. (1994). *Asian Americans: Personality patterns, identity, and mental health*. New York: Guilford Press.
- Wester, S. R., Vogel, D. L., Pressly, P. K., & Heesacker, M. (2002). Sex differences in emo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ist, 30*, 630-652.
- Yamada, A-M., & Singelis, T. M. (1999). Biculturalism and self-construa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 697-709.
- Yang, K. S. (1981). Social orientation and individual modernity among Chinese students in Taiw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3*, 159-170.
- 원 고 접 수 일 : 2005. 2. 28
수정원고접수일 : 2005. 4. 18
게 재 결 정 일 : 2005. 5. 6

K C I

A Cross-Cultural Study on the Effects of Counselor Variables on Perceptions of Counselor Emphasis of Different Client Emotions

Young Seok Seo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counselor cultural values, gender, nationality, and marital status affect his or her perceptions of counselor emphasis of different client emotions. Thirty-six American counselors and thirty-nine Korean counselors read two counseling scripts in which the counselor emphasized expression of different client emotions, ego-focused or other-focused emotions, and they rated the counselor in terms of counselor credibility. It was revealed that a three-way interaction effec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counselor nationality, gender, and interdependent orientation. Korean counselors, male and female, rated the counselor in the ego-focused emotion script more highly than the one in the other-focused emotion script. On the other hand, for American female counselors, their ratings to the one in the other-focused emotion script got higher as their interdependent orientation became stronger. For American male counselors, however, their ratings to the one in the ego-focused emotions script got higher as their interdependent orientation became stronger. In spite of several limitations such as small sample size and analogue design,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need to consider counselor cultural values as well as client cultural values in dealing with emotional issues in counseling.

Key Words : counselor cultural values, ego-focused emotions, other-focused emotions, interdependent orientation